

HARVEST TIMES

2025년 11월 1일 제 14권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HARVEST

CONTENTS

- 09 인격적 선교사(personalized missionary)의 필요성
- 07 하베스트 대학교 미디어 대학원 원장 조창식 박사
- 16 한국 태안캠퍼스
- 18. 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안내
- 19 문화예술대학원 학위과정 안내
- 20 선교대학원 학위과정 안내
- 21 가족 성장 대학원 학위 과정 안내
- 22 학위과정 운영 규정
- 27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 32 초기 기독교 아시아 전래 이야기
- 23 존 웨슬리의 선교
- 43 사)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 46 거룩 그리고 예배
- 48 말
- 49 코칭 이야기
- 53 죄에 대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두 시선
- 59. 선교사 연금 제도 안내
- 65. 하베스트 열방 복지물 안내

인격적 선교사(personalized missionary)의 필요성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대표
하베스트 대학교 총장
이성상 태국 선교사

21세기 세계 선교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선교의 지형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포스트모던(postmodern) 세계관은 진리, 윤리, 종교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상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격적 선교사(personalized missionary)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선교사 파송 2위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영적 성숙도와 인격적 성화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 소진(burnout), 사역 중단 등의 문제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선교 기관과 현장 보고에 따르면, 파송 후 5년 이내에 사역지를 떠나는



선교사가 적지 않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품성의 미성숙(character immaturity)’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지식과 기술 중심의 선교사 훈련 체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 훈련원은 언어, 문화, 전략 등의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에 집중한 나머지, 선교사의 내면을 형성하는 정의적·영적 영역(affective and spiritual domains)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는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참여하는 영적 여정(spiritual journey)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인격과 영성의 성숙은 그 사역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가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을 “인간 존재의 가장 내적 차원인 마음(heart or will)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지식만으로는 참된 제자가 형



성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 역시 영적 훈련(spiritual disciplines)을 은혜의 통로(means of grace)로 보며, 그리스도인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새롭게 빛어질 때 비로소 성숙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선교 기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구원론적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신앙 교육은 ‘구원받은 사람’(redeemed man)은 세우지만,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사람’(Christlike person)은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강한 신앙고백과 열정이 있으나, 세상 속에서는

윤리적·관계적 영향력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불균형은 선교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은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언어적·문화적 장벽보다 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격과 삶이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선교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살아있는 해석(living interpretation)이어야 합니다.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문화 간 선교에서 선교사의 인격적 성숙과 ‘비판적 상황화(critical contextualiz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와 복음의 만남 속에서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으려면,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품성계발(character formation)’은 단순한 윤리교육이 아니라 성화(sanctification)의 실천적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품성은 인간의 타고난 기질(nature)이 성령과 말씀의 빛음 속에서 다듬어지고 새겨진 결과로서, 신자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Fruit of the Spirit)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토머스 리코나(Thomas Lickona)는 “품성은 선을 아는 지식(knowledge of the good), 선을 바라는 마음(desire for the good), 선을 행하는 습관(practice of the good)”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3단계—깨달음(illumination), 소원(desire), 실천(practice)—과도 일치합니다.



하베스트 대학교는 선교사들을 교육하면서 품성계발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품성은 곧 성화의 교육학적 구현이라고 보고 ‘성품(nature)’이 거듭남(regeneration)을 통해 새로워진다면, ‘품성

(character)’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져야 한다는 입장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훈련(training)과 교육(education)을 통해 의식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을 통한 가르침(life-based teaching)은 바로 품성교육의 원형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은 윤리적 혼합주의(ethical syncretism)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지 못하면 문화의 가치관과 타협하거나, 반대로 문화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붙들되, 동시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온유와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형성입니다.

오늘날의 선교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자’,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인격적 사역자여야 합니다(고후 2:15). 하베스트 대학교는 이러한 방향성 아래, 성화와 품성계발의 신학적 기초 위에 세워진 선교사 교육의 장으로써, 21세기 선교의 질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년의 해외 선교

하베스트 대학교 미디어 대학원 원장
태국 치앙라이 타미라 선교센터
선교사 조창식 박사



해외 선교란 혈기 왕성할 때에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해도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고 은퇴가 수년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열대의 나라 태국 치앙라이 타미라교회에 담임 목회자와 선교사로 결단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젊었을 때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외 선교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놓았을까요?

신앙의 전통이 없는 불신 가문에서 3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목회자로 부름 받은 나는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영성이나 목회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길보다는 운동(축구, 테니스)이나 외부 활동(연극, 씨클)에 치중하다시피 하였다. 신앙적인 배경이 없었고 나 자신의 계발에도 무성의했으므로 신학교 졸업 후에 교회 담임 전도사로 나서기도 쉽지 않았습니

나를 좋게 보고 끌어줄 선배조차 없었기에 목회하는 친구들에게 수소문한 결과로 겨우 동부연회 강원도 명주군 왕산면 고단리에 있는 개척 한지 몇년 안 된 산골 미자립 교회의 2대 담임자로 목회를 시작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목회 여정 속에서 경북 봉화군 석포면 광산촌에 있는 대현교회에 시무할 당시에 장래가 불투명한 목회를 하루하루 이어가는 형편이었는데 난데없이 고향 교회의 은사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 그분은 부산 충무로교회 (지금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름을 밝힘)에 시무하고 계셨는데 암 말기 환자로 투병 중이라 정상적인 목회를 못 하고 계셨습니다.

이 교회에 나를 부목사로 청빙하였고 몇 달 후에 담임목사님은 소천하시고 내가 담임목사가 된 것입니다. 약관 33세에 부산시의 대 충무로교회 담임목

사가 된 것은 너무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좋은 임지에서 열정적으로 목회하지는 못했지만,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였고 나도 좀 교만하며 우쭐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중에 하나는 전임자들이 이루려고 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교회의 숙원 사업을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부산 충무로



교회는 자갈치 시장과 인접하여있고 충무동 로타리의 근처에 있으므로 땅을 구입하는 일이었습니다. 감리교인들이 6.25때 피난 와서 설립하였는데 도심 길옆에 세워져서 마당이 없고 사택은 교회와 붙어있어서 안방 문만 열면 예배실이였다. 그래서 전 전임 때부터 비싼 땅 교회를 팔고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목회적으로 큰 실적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교회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매각을 하게 되었고, 새 부지를 물색하든 끝에 공원과 학교 사이에 있는 절묘한 곳의 매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이전하려고 시도하는 곳이 현 교회와의 거리가 먼 까닭에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장로님들이 큰 반발을 하였습니다. 노련하게 타협하며 여론을 하나로 해서 일을 추진하지 못한 탓에 지방 감리사와 결탁한 중직들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인사구역회가 소집되었고 나를 미자립 겨우 면한 교회에 시무하는 감리사가 자신과 교회를 맞바꾸도록 인사 결의를 한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였는데 나는 당시의 젊은 혈기로 이 불의한 인사구역회에 순응하지 않았고 다른 갈 곳도 없이 충무로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딸은 처갓집으로 어린 아들은 본가로 집사람은 일터로 흩어지고 나는 정처 없는 방랑길로 수개월을 헤매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친구를 통하여 자기 누님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자리가 빈 것을 알고 고맙게도 딱한 처지의 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회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내가 쫓겨난 부산 충무로교회와 같은 지방의 교회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서 명예회복을 시켜주신 것이다.

다시 복귀한 지방에서 은혜롭게 목회하는 가운데 고향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임하면서 후임자를 구한다고 해서 아는 선배 목사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옮길 생각이 없다고 하시며, “자네가 가고 싶다고 하계”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듣고 어리벉벉하였는데 재차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였는데 이왕 밀려야 본전이니 해보자 하고, 다음날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말씀을 두드렸습니다. 마땅한 목회자가 없다고 하면서 추천하겠다고 하여서 기구하게도 자신의 출신 고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목회는 무슨 이유인지 장기목회를 못 하고 여러 교회에서 목회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고향교회에서 13년이라는 장기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외로 목원대학에서 겸임, 특임, 외래교수로 십년 정도 강의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설립 100주년이 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었을 때에도 전임 여러 목회자들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가서 목회하며 뒤늦게 11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기도 하였다. 여러곳에서 목회 경험을 쌓았는데 첫 임지는 강원도 그다음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마지막 목회지는 서울남연회 소속인 태국 치앙라이 타미라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남한 8도를 거의 돌아다니며 목회를 한 셈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한을 무대 삼아 목회를 하게 하였을까?

아마도 목회 밀천이 부족한 나에게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훈련받으며, 이후에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하는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목회 최고 최대의 충격적인 사건이 전라도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농촌 마을인데 교회 역사는 한 50년 되었고 노년층이 많아서 교회 수송을 위해 2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사순절기와 부활절을 지내고 농번기가 시작되므로 교회에서 부활절 지난 주간 농번기 전에 남녀선교회 회원들이 나들이를 가기로 하고 교회 차 25인승 버스에 19명이 타고 여수 오동도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월요일이라 나는 박사학위 공부를 위하여 대전으로 가고 아내는 같이 가게 되었는데, 공부하는 시간에 아내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받아보니 울면서 하는 말이 교통사고가 나서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는 끔찍한 내용 이었습니다.

교회 차가 겨우 내에 세워놓고 단거리 운행만 하다가 장거리 운행을 하자 고장이 나서 터널 안에서 스톱을 하고 만 것입니다. 다른 차들은 잘 비켜 갔



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25톤 화물트럭이 뒤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사고 비디오를 보니 차가 추돌 되자 스프링처럼 휘어지며 2m가량 튕겨 올랐고 출입문과 창문이 부서지며 사람 대부분이 도로 밖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젊었던 아내가 그중에서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그야말로 피투성이 아수라장 아비규환의 현장이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판박이 사진이 뇌에 각인이 되어서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세분이 소천 하시고 한분이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소천 하시어 장로님과 권사님 4분이 소천 되시고 나머지 모두는 중상을 입고 후에 치료는 되었으나 지금도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목회에 남다른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게 하셨는가?

이러한 의문 속에서 한해 선배인 절친 목사님이 좀 늦게 목사안수를 받고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연고로 약 10년간 선배님 보러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며 선교 현장에 다니며 선교에 대한 이해와 선교사의 삶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원대학교 외래교수로 출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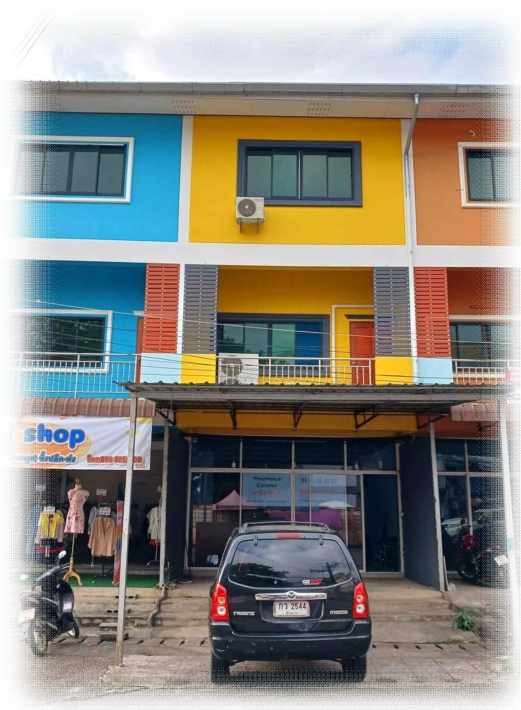
면서 친구 교수님의 권유로 몇 분과 같이 목원대 감리교선교훈련원에 등록하고 공부 하여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친구 따라서 강남 갔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절친 목원대 모 교수가 자신은 65세가 되면 교수직을 은퇴하니 목사 정년은퇴 시까지 태국에서 일하고 싶으므로 현지답사를 간다고 하면서 같이 가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 친구의 득을 크게 본 나는 거침없이 같이 가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자부담 하여 태국 치앙마일로 갔고 거기서 친구 선교사와 후배 선교사들을 만나며 현지답사를 하였다. 그 기간에 친구의 대학원 동기인 나이는 선배인 분이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지대와 연결되는 북쪽 치앙라이 타미라교회에서 한인목회를 하며 선교활동을 하는데 치앙마이까지 내려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과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곳을 알게 되었고 고산지역에다가 소수민족도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 말년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를 조기 은퇴 하고 태국 치앙라이로 가서 선교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에 나 자신도 놀랐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선교 현장을 알아야겠기에 두 차례 치앙라이 타미라교회를 방문하면서 3년 조기 은퇴를 하고 타미라교회를 도우며 선교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3년 후에는 자신이 정년은퇴를 하여 여기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그러면 나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도우며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조기 은퇴를 준비하였고 정년은퇴를 3년 앞둔 시기에 조기은퇴 서류를 연회본부에 제출하고 정기연회가 열릴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타미라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받아보니 교회 후임자를 물색하여 두분의 목회자가 답사를 왔으나 못오겠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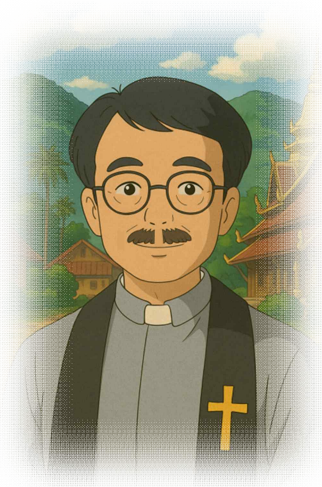
그도 그럴 것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주 후원교회에서 기본 생활비를 후원해 주므로 생활하기에는 큰 걱정이 없지만, 교회에 담임목사로 파송을 받으면 생활비와 모든 경비는 자체 교

회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타미라교회는 개척한지 5년 정도되는 미자립교회이며 교회에서는 한 푼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오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지 말고 여기에 와서 자기 후임자로 일하면서 정년은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은퇴연금이라도 받으면서 해외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뜻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출한 조기 은퇴서류를 다 취소하고 교회 인사처리를 하고 태국 치앙라이 타미라교회로 파송을 받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데로 2020년 코로나 펜데믹이 시작되면서 파송교회에 가지 못하고 발이 쑹쑹 묶이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대산면 리 단위 마을에 자그마한 터를 잡고 살면서 파송교회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 보니 속마음은 타들어 가는 듯하였고 전망은 불투명하였습니다.

이때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해를 넘기고는 이대로 마냥 기다리며 사명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결단 아래에 호텔격리, 코로나 보험, 비싼 항공료 등의 많은 대가를 치르며 친구들과 선후배 여러분의 도움으로 파송 받은 선교지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이후 선교의 토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년은퇴를 하면은 그나마 개별적으로 하는 선교 후원도 줄어들 것이고, 현실적인 안주에 집착하여 선교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년은퇴 전에 교회 밖에 시내와 좀 더 가까운 곳에 무리하게 사택을 임대하여서 목회 은퇴 이후의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어려웠지만 새롭게 타마라 선교센타를 설립하여 “목회는 은퇴가 있지만, 선교는 은퇴가 없다”라는 명언을 거울삼아 노년의 선교에 박차를 가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과 비전] 타미라 선교회를 통한 선교

1. 목회와 선교 훈련 센타 - 현지 태국 목회자 훈련과 선교사 연장 교육
2. 자매결연과 후원 선교 - 도움이 필요한 소수부족과 고산족 학생들을 발굴하여 한국 교회, 기관, 가정, 교우들과 연결하여 후원하고 육성
3. 사회봉사사역 - 대학가에 위치한 센타의 장점을 살려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봉사를 하므로 선교의 접촉점을 마련
4. 외부사역 - 외부 현지교회를 정하여 선교하고 기타 현지교회를 순회하며 선교
5. 협력 선교 - 타 선교 사역지의 협력 선교사로 동역



[기도제목]

1. 태국, 미얀마, 라오스(타미라)를 복음화 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소서
2.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는 실제적 선교가 되게 하소서
3. 소수부족과 고산족을 선교하며, 차세대를 세우게 하소서
4. 선교사역이 재정적 안정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5. 세계 선교를 향한 기도와 후원의 동역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태국 치앙라이
타미라선교센타
ThaMyLa Center

 선교사 조 창 식 목사
Rev. Chang Shik Jo

 Ko. 010-8553-7546
Tha. 062-274-9135

 Kakao ID : jony5279
Line ID : changjo

후원  농협 867-02-132638

231/1 M.9 Tambon Bandu Muang
Chiang Rai 57100 Thailand 

한국 태안 캠퍼스 학장 박춘숙 선교사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608-193



하베스트 대학교 한국 태안캠퍼스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잡은

고즈넉하고 조용한 **그때 그펜션**

꽃지 해수욕장, 밧개 해수욕장, 삼봉 해수욕장
등 설 거리 먹거리 장소가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바닷가에서 해루질 체험과
석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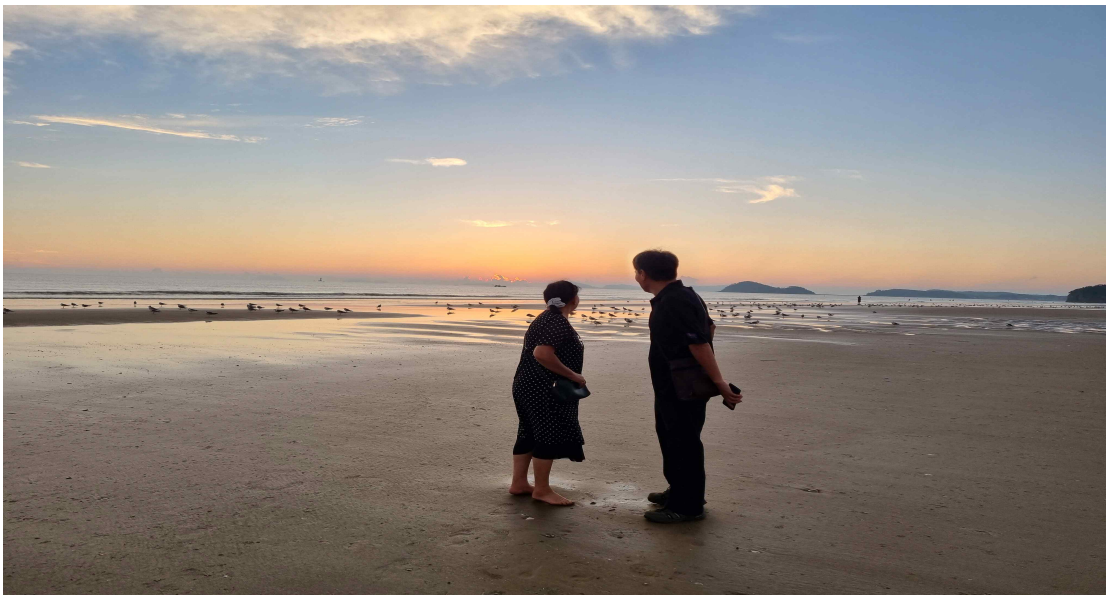
하베스트 가족 (선교사님들과 가족)

사용료 1인 1일 2만원

연락처 **010 2733 6287, 010 6560 6287**

주중에 오시면 더욱 조용하게 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엔 **안면도 들꽃축제와 국화축제, 대하 축제**가 진행됩니다.



한국 태안 캠퍼스 전경





신학대학원



신학석사(Th.M), 신학박사(Th.D),
철학박사(Ph.D in Theology) 및 통합과정

1. 신학석사(Th.M) 졸업 요구학점

- (1) 신학사(B.A)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 (2) 문학석사(M.A)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 (3) 목회학석사(M.Div)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20학점

2. 신학전공 철학박사(Ph.D) 과정 학생은 논문 10학점을 포함하여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전공을 선택하려면 필수과목 이외에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 (예: 성서학 전공, 조직신학 전공, 교회사 전공, 실천신학 전공 등).

4. 논문작성은 필수이며, 10학점으로 한다.

5. 문학석사(M.A)와 신학석사(Th.M) 과정 학생은 5과목(10학점) 이상의 교양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6. 입학요건은 목회학석사(M.Div)나 문학석사(M.A) 학위 소지자와 이에 따르는 정규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 석사 (M. A in InterCultural Arts)

문화예술학 박사(Ph.D in InterCultural Arts)

석사, 박사 통합 과정

1. 전공필수

교회음악학 (김부식 박사), 문화인류학 (김부식 박사)

문화예술 경영론 (김부식 박사), 캘리그래피 (김부식 박사)

힐링발성법 (정찬혜 박사), 아동문학 (김성구 박사)

2. 전공 선택

작곡법 (김부식 박사), 반주법 (김부식 박사)

기초성악 (김미현 박사), 합창지휘법 (김부식 박사)

시낭송 (남기선 교수), 수묵화 (김부식 박사)

성전꽃꽂이 (이현옥 교수),

시, 수필 강좌 (김부식 교수, 이진영 교수, 김성구 교수, 배인수 교수)

사진학 (정상진 교수), 한국장단(북,장구,뿔과리/사물놀이) (김부식 박사)

캘리그래피 (김부식 박사), 난타(타법과 설계) (김부식 박사)

3. 전공별 논문

1) 음악 전공 음악회

2) 미술 전공 전시회

3) 문학 전공 출판



선교대학원

선교학 문학석사(M.A in Missiology),
선교학박사(D. Miss),

철학박사(Ph.D in Missiology) 및 통합과정



1. 전공 필수

- * 선교학 개론 (김현진 박사),
- * 선교의 역사 (김현진 박사),
- * 선교적교회론 (김현진 박사),
- * 공동체와 선교 (김현진 박사),
- * 선교 신학 (김현진 박사)
- * 선교 문화인류학 (김현진 박사)
- * 성령과 선교 (김현진 박사)
- * 다문화 선교 (김현진 박사)

2. 전공 선택

- * 전도학 (이성상 박사),
- * 미디어와 선교 (조창식 박사)
- * 디지털 시대 AI와 선교 (안정위 박사)
- * 모라비안 형제단의 세계선교 (유정남 박사)
- * 선 의 경 교 (김규동 박사)

3. 논문 - 석사 과정 6학점, 박사 과정 10학점

4. 교양 필수

박사 과정 학생은 3과목(6학점) 이상의 교양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



가족성장 상담 대학원

가족성장 상담학석사 과정 (36학점)

Master of Arts in Family Counseling
and Development



1. 전공필수과목

10과목 20학점, 아래 15과목, 각 2학점 중 10과목 선택 가능

가족치유 7 과정

내적 치유 (오광복/이은경 교수), 역기능가정 치유 (오광복 교수)

우울증과 분노 치유 (오광복 교수), 성격장애 및 인격장애 치유 (오광복 교수)

위기 디브리핑 (위기치유상담) (어진옥 교수)

사람 의존성 치유 (오광복 교수), 거짓된 사고 치유 및 중독 치유 (오광복 교수)

가족성장 5 과정

MBTI와 인간 이해 (이은경 교수), 중년기 변화와 성장 (이은경 교수)

인간관계훈련 (오광복 교수), 대화훈련 (이은경 교수)

향기나는 인격과 관계성장 (오광복 교수)

독서치유 3 과정

독서치유 상담 (오광복/이은경 교수)

독서상담의 실제 (어미선 교수), 독서상담실습 (어미선 교수)



2. 자격증 과정 (추가과정)

가족성장 상담사, 가족치유 상담사, 독서치유 상담사

하베스트 대학교 학위과정 운영 규정

하베스트 대학교는 학점 은행제로 운영된다.

- (1) 학생은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다.
- (2) 학생은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졸업할 수 있다.

행정비

- (1) 입학금은 5만 원으로 한다
- (2)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등 제반 서류 발급 비용은 2만 원으로 한다.
- (3) 선교지의 학생일 때 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이 정한다.

학비

- (1) 1학점당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학생 정원

- (1) 대학원장과 담당 교수의 결정으로 학생 1인 이상으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입학 서류 제출처

하베스트 대학교 교무처 harvestuniversity365@gmail.com

입학금

입학금 5만원을 접수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환불하지 않는다.
위조문서가 발견될 경우 등록 학생은 즉시 퇴학 조치된다.
아울러 학위 증명서가 무효 된다.

등록 절차

- 1. 1차 서류 접수, 2차 면접 및 심의, 3차 합격 통지서 발송 후 학비를 납부한다.
- 2. 학번을 부여받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을 신청한다.

학위 과정 안내

학사과정

- (1) 신학사(Bachelor of Theology, B.Th.)
- (2) 선교학사(Bachelor of Arts in Missiology, B.A.)

석사 학위과정

- (1) 문학석사(Master of Arts, M.A)
 - 선교학 석사 (M. A in Missiology)
 - 문화예술학 석사 (M. A in InterCultural Arts)
 - 가족성장 상담학 석사 (M.A in Family Counseling and Development)
- (2) 목회학석사(Master of Divinity, M.Div)
- (3)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Th.M)

박사 학위과정

- (1) 목회학박사(Doctor of Ministry, D.Min)
- (2) 선교학박사(Doctor of Missiology, D.Miss)
- (3)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Th.D)
- (4) 철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Ph.D)





VERIFICATION OF EXEMPTION

July 31, 2025

Mi Seon Eur
Harvest University
2471 Foxdale Avenue
La Habra, CA 90631

RE: Application for Verification of Exempt Status – Application Number 38262

INSTITUTION: Harvest University

BASIS FOR EXEMPTION: Religious - California Education Code (CEC) section 94874(e)

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Bureau) has completed the review of your Institution's Application for Verification of Exempt Status pursuant to the California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Act of 2009 (Act) based on the application received on June 13, 2025.

The application demonstrates that Harvest University has met the qualifications for exemption from regulation under the Act, pursuant to California Education Code (CEC) section 94874(e): *"An institution owned, controlled, and operated and maintained by a religious organization lawfully operating as a nonprofit religious corporation..."*

Pursuant to CEC §94874.7, this verification of exemption shall remain valid until July 31, 2027, as long as the institution maintains full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exemption.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will deem the institution ineligible for this exemption:

- the institution offers degrees or diplomas outside the scope of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the church, religious denomination, or religious organization;
- the institution offers degrees in any area of physical science;
- the institution is no longer a religious nonprofit organization;
- the institution is approved to participate in veterans' financial aid programs pursuant to Section 21.4253 of Title 38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any other factor exists that would render the institution ineligible for an exemption under the CEC section 94874(e).

Additionally, exempt institutions shall comply with CEC §94927.5 regarding the retention of student records and transcripts and their submission to the Bureau prior to closing.

If you require additional assistance on this matter, please contact Nicholas Robinson at (279) 895-6082.

Sincerely,

Nicholas Robinson

NICHOLAS ROBINSON
Licensing Analyst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Tax Exempt and Government Entities
P.O. Box 2508
Cincinnati, OH 45201

HARVEST UNIVERSITY
2471 FOXDALE AVE
LA HABRA, CA 90631

Date:
09/19/2025
Employer ID number:
39-4079535
Person to contact:
Name: M Collins
ID number: 3364079
Telephone: 877-829-5500
Accounting period ending:
December 31
Public charity status:
509(a)(2)
Form 990 / 990-EZ / 990-N required:
Yes
Effective date of exemption:
May 18, 2025
Contribution deductibility:
Yes
Addendum applies:
No
DLN:
26053653005725

Dear Applicant:

We're pleased to tell you we determined you're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 under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501(c)(3). Donors can deduct contributions they make to you under IRC Section 170. You're also qualified to receive tax deductible bequests, devises, transfers or gifts under Section 2055, 2106, or 2522. This letter could help resolve questions on your exempt status. Please keep it for your records.

Organizations exempt under IRC Section 501(c)(3) are further classified as either public charities or private foundations. We determined you're a public charity under the IRC Section listed at the top of this letter.

If we indicated at the top of this letter that you're required to file Form 990/990-EZ/990-N, our records show you're required to file an annual information return (Form 990 or Form 990-EZ) or electronic notice (Form 990-N, the e-Postcard). If you don't file a required return or notic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your exempt status will be automatically revoked.

If we indicated at the top of this letter that an addendum applies, the enclosed addendum is an integral part of this letter.

For important information about your responsibilities as a tax-exempt organization, go to www.irs.gov/charities. Enter "4221-PC" in the search bar to view Publication 4221-PC, Compliance Guide for 501(c)(3) Public Charities, which describes your recordkeeping, reporting, and disclosure requirements.

Sincerely,

Stephen A. Martin
Director, Exempt Organizations
Rulings and Agreements

Letter 947 (Rev. 2-2020)
Catalog Number 35152P



AROMATHERAPY



향기로 말하는 여자

최지영 지음

향기가 좋은 마음을
시도하는 아로마테라피
그녀가 아로마테라피를
만난 것은 향물이었다



에스
AROMATHERAPY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창46)

정규동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교수



46장에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과 그때 함께 갔던 자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야곱은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들러 밤을 세며 ‘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꿈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소용없는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다른 아들들로 요셉을 시기하게 만들었

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지원하거나, 조언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기도라도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17살에 팔려 가서 13년을 지나는 동안 요셉은 제 혼자 모든 역경을 헤쳐서 당당히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부모의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잉사랑과 과잉보호는 그 가정에 불행을 불러왔지만, 그것이 섭리를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간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양육하면서 그냥 두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방해 공작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37:20). 형들은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방해 공작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형들의 이런 행동을 섭리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행동이 꿈을 이루어가는 일이 된 겁니다.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애걸복걸했지만, 종으로 팔려 갔습니다. 종으로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죄수가 되어 또다시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고,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만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경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양식을 사러 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가기 싫지만 또 가야 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양식이 있었다거나 가뭄이 심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곳에 가야 요셉을 만나고 그 앞에 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몰아가셨습니다.

이 앞에서 인간의 저항이나 거부나 방해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1-4)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에 반가운 마음으로 가나안을 출발했지만, 그 마음속 한 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금지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이른지 오래 되지 않아서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12장).

이삭도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26:2). 야곱은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 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야곱은 ‘환경 조성’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없이 바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또 맞을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조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응답의 장소’ 브엘세바에 일부러 찾아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기도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3-4)

하나님은 밤에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허락입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이 금지된 땅이지만 허락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

가는 것을 두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허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뽀엘 약속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뽀엘에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28:15).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입니다(4). ‘너를 인도하여’라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이 야곱 시대에 일어날 것 같지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야곱이 그곳에서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야곱 자신이 아니라, 야곱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8)

야곱의 인솔로 애굽에 내려간 모든 자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70명이었는데, 야곱 자신과 애굽에 있는 요셉과 두 아들을 빼고 총 66명이라고 했습니다(26).



몇 명의 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자부의 이름은 한 사람도 기록된 것이 없고 대부분 아들과 손자들입니다. 그중에 4대가 기록된 아들이 2사람 있는데, 유다와 아셀입니다 (12,17). 이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혼한 사실이 유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셀은 이곳에서만 밝혀졌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상봉 장면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야곱의 첫마디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였습니다(30). 야곱의 이 한마디에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존재는 순전히 '섭리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기도 한번 한 적이 없었고, 형들은 섭리에 정면 도전하여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꿈으로 미리 보여 주신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잘 따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실 겁니다.

초기 기독교 아시아 전래 이야기 (기독교 동전사)



김 규 동 박사

- Silk Road 고대기독교 연구소/유물관 소장(광신대)
- 중국 이단사이비종파 연구소
- 광신대학교 초빙교수
- 하베스트대학교(태국/제주분원) / AMAS(홍콩)
- 에스라신학연구원(제주) / AEAT연구소
- 차세대교육선교회 제주지부 톨레돏선교영성센터(제주)
- GMS(중국선교 33년차)

저서

1. 장안의 봄(a Spring of Chang-an)
기독교 동전사(a History of Christianity Spreading Towards the East)
2. 선의경교(善醫景敎: Acknowledged Medical Practices of Jing-Jiao)
대진경교(大秦景敎)의 의료선교 고찰(a Study on the Medical Mission of Jing-Jiao)
3. 사막교부 연구(a Study on the Desert Father)
(성 안토니우스, 에바그리우스, 카시아누스를 중심으로)
(Focusing upon St. Antonius, Evagrius, and Cassianus)
4. 중국 이단 & 사이비종파 총람(The General Outlook of Chinese Heresy)
5. 내가 죽은 십자가(我已死在十架上)
6. 천년의 은둔(a thousand years of Seclusion)

동방기독교사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다. 다만 필자는 지난 이십여 년 전부터 매년 중국 신학생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국 이단&사이비 종파에 관한 강의로 이해를 도울 때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형태와 초대교회 신앙공동체의 삶을 비교/분석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성 어린 신앙심과 초기 기독교 선교사의 덕목을 지닌 모범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서, 동방기독교에 관해 연구함에 있어 그 생소함과 방대함에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시에, 지금껏 우리가 속한 아시아권 역사에 소홀했음을 느꼈고, 서구화에 편중되어 학습해 온 학문의 자세가 심히 부끄러웠다. 솔직히 그동안, 동방기독교 역사에 관한 나의 이해도는 일찌감치 들춰볼 필요조차도 없는 역사로 치부하거나 관심분야가 아니었으며, 일부는 역사적 오해에서 기인되었음을 간략하게나마 알고는 있었다.

어쨌거나, 본 연구로 전혀 다른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얻게 되었고, 동방기독교인들의 경건한 삶의 여정과 복음에 관한 역동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景教라고 불리는 동방교회(The Church of East)에 관하여는 중국 선교사로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당대

그들의 활동사가 학계에서는 간략하게나마 보고되었고, 실크로드 지역 역사 박물관에는 고작 유물 몇 점과 짤막한 보충설명이 전부였다.

이에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곧이어 이 연구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다. 唐代 유입 전, 그들의 복음의 순수 열정적 행보와 唐代 이후, 식상해버린 그들의 행보를 뒤돌아보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안을 찾고자 했다.



필자는 지난 십 수년간 동방기독교의 출발에서 종착점까지 크게 실크로드 세 간선인 육상과 해상 루트를 따라 그들의 흔적을 탐사하였다. 중국의 長安과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취엔저우(泉州)에서 튀르키예, 고대 기독교의 코카서스 3국, 몽골, 파미르고원과 천산산맥

의 중앙아시아, 이란, 러시아 남부, 인도차이나, 그리고 한반도의 전역까지였다.

그나마 나의 고단한 탐험을 지속시킨 강력한 동기는 동방기독교인들의 순수하며 고결한 신앙심 즉, 메시아사상을 돌아보게 하시며 동시에 복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그들만의 언어 코드인 고대 시리아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방교회와의 격을 두었다. 다른 한 가지는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만들지 않았고, 실지로 그들의 행로에는 돌 십자가와 청동십자가가 전부였다.

저자는 가급적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좀 더 세심한 고찰을 통해 연관된 동방기독교사의 다양한 스토리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한다.

景教(Luminous Religion)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반 중국 돈황에서 장경동(藏經洞)의 발견과 함께, 여러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시리아, 페르시아에서 전래해 들어온 외국 종교로서의 단순한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점차적으로 唐代 전후의 정치, 종교, 비즈니스, 문화예술, 의학 등을 총망라한 전반적인 연구서가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동시대 페르시아와 아랍 그리고 유럽 역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연구의 주된 목표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인물 혹은 사상에 집중 조명하거나 시대적인



분류로 교회사의 일부를 알리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일찍이 하나님께서 동방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 특별한 스토리를 통해 한시적으로 특정 집단과 인물을 사용하셨고, 그 복음이 때때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진행되었을 때 가차 없이 복음의 문을 닫으셨다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주목하고 싶었다.

동방기독교의 열정적 복음행로 전체는 결국에 그리스도 구속의 연결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명이 아니고서 결코 숭한 고난의 행군은 처음부터 시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특별히 천년의 세월 동안 로마를 거쳐 페르시아, 그리고 극동 아시아까지 전파되어 온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이 땅에 별다른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 묻혀버린 영적 현장에서 과거와 현재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뜨거운 복음의 대서사시를 재확인하고 한국교회와 성도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써 내려가고자 한다.

필자는 그동안 기독교 교회사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초기 동방기독교 교회사에 관한 역사와 유입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다년간의 걸친 현장 유적지 답사와 발굴 및 여러 동서양 학자들의 논문과 원서



를 토대로 복음의 동방 전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공의회를 통해 신학을 구성하고 정립해가는 과정 중에 피치 못할 정치적 술수와 이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결국 이단이라는 선부른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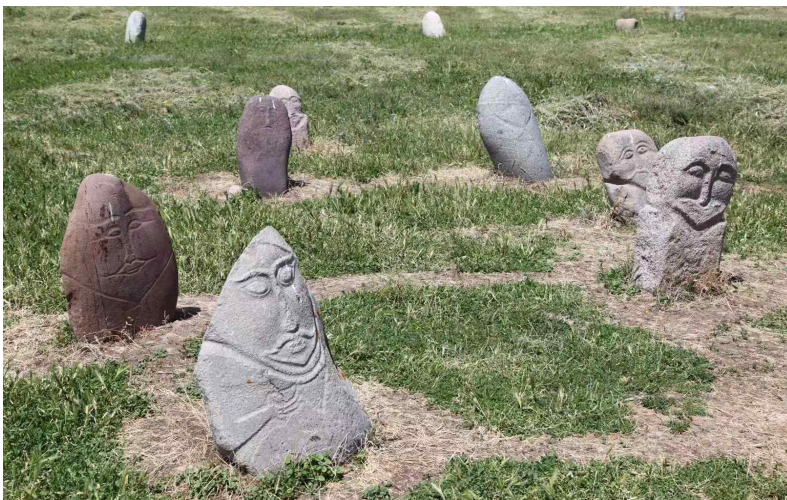


당시의 결과야 어떻든 필자는 선교학적 입장에서 네스토리우스(Nestorius)와 그의 영향으로 세워진 동방교회의 신학과 목양, 그리고

선교적인 측면을 연구해보고 싶었다. 또한, 그들의 엄청난 선교적 여정과 초월적인 복음의 열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면서도 죽음과 공포를 뛰어넘는 타문화권을 향한 거침 없었던 행보는 실로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지도자들이 아닌 복음의 개척자들 즉, 동방의 프로테스탄트들이었다. 그들의 존재는 대부분 무명의 선교사들이었고, 그들은 기억에서 아주 오래전에 지워진 선교사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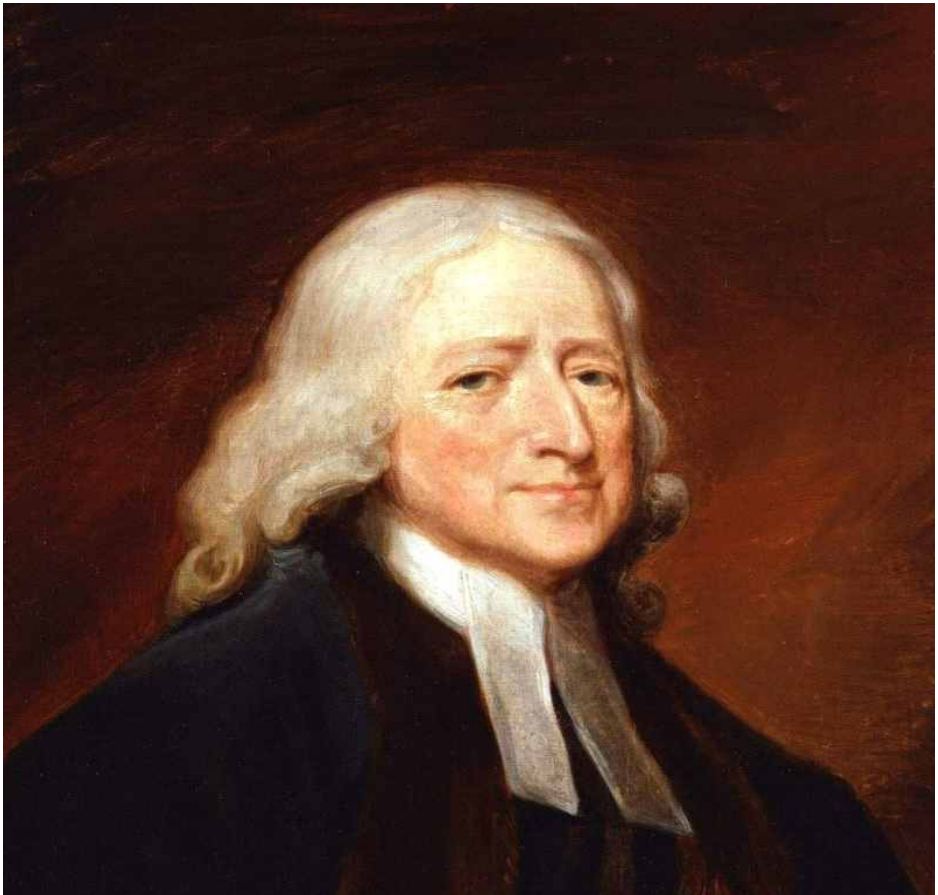
비록 중국 唐代에는 景教가 기독교의 본질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과도한 판단이다. 그들의 토착화를 위한 몸짓은 우스꽝스러웠을지라도 내적본질은 늘 성경적이었음을 알리고자 한다.



돌궐인 석상: 7C
돌궐에서는 집단적인
기독교 개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존 웨슬리의 선교

김현진 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장
태안 사림의 공동체 대표



불같은 전도자 요한 웨슬리

헤른후트 공동체는 1735년에 북미 인디언 선교를 위해 26명의 모라비안 형제단을 북미 조지아에 파송하였다. 이때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와 찰스 웨슬리 (Charles Wesley, 1707-1788) 형제도 조지아로 부터 초청을 받아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로서 대서양을 향해하는 배에 타고 있었다.

그들은 도중에 심한 폭풍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 때 배 안에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게 찬송하는 한 무리들이 있었다. 폭풍 가운데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모습을 본 존 웨슬리는 “저들은 누구이기에 죽음의 위기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찬송하고 있는가?” 하며 놀랐다.



웨슬리의 영적 변화에 도움을 준 모라비안 피터 벨러

그들은 바로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모라비안 형제단들이었다. 폭풍이 잔잔해진 후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웨슬리 형제의 조지아에서 선교 사역은 패착이었다. 2년간의 선교 사역에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영국으로 귀환한 존 웨슬리는 런던에 있는 모라비안들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존 웨슬리가 성령체험을 했던 런던의 페터레인 모라비안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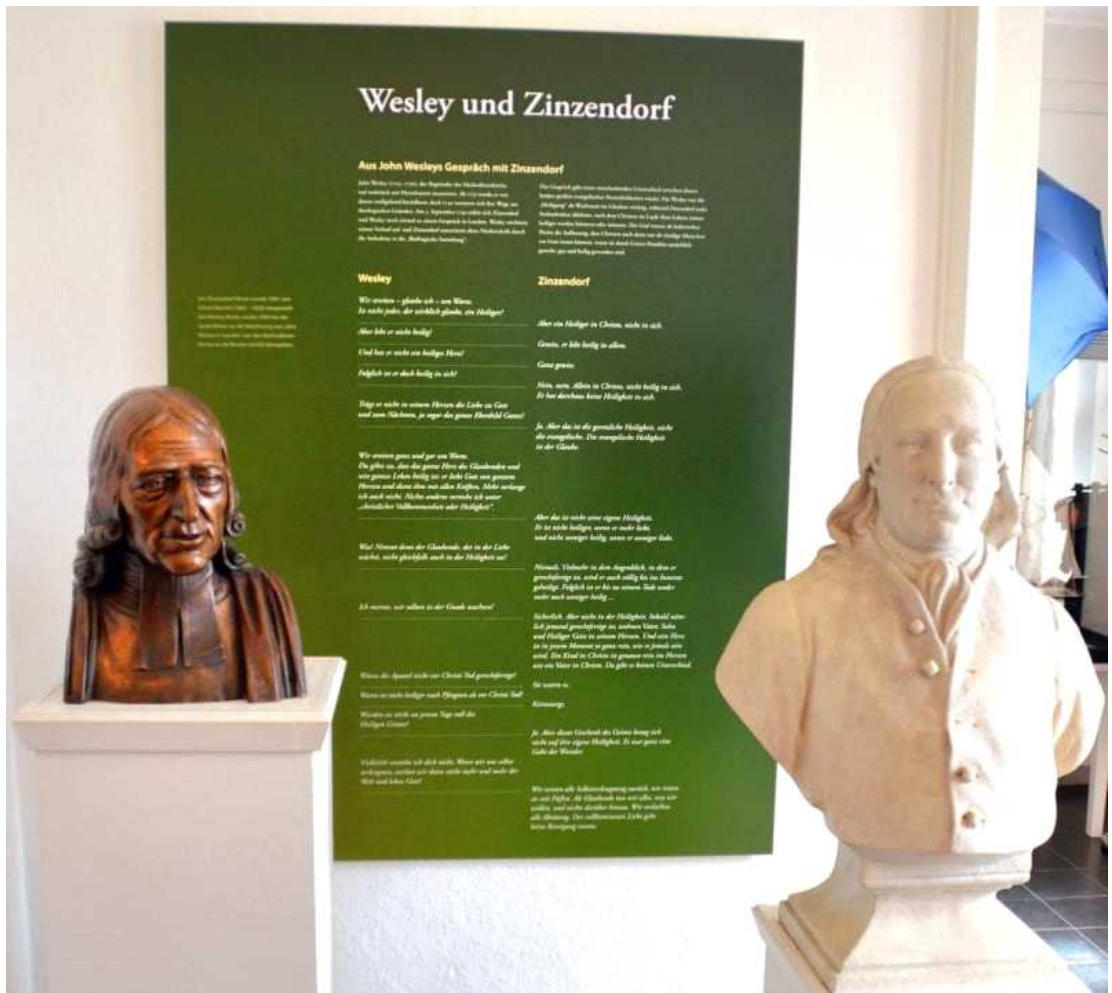
웨슬리는 1738년 5월에 런던 페터레인에 있는 모라비안 공동체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거기서 리더인 피터 빌러(Peter Boehler, 1712-1775)의 도움을 받아 그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 체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



진젠도르프와 대화하는 존 웨슬리

런던에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변화된 웨슬리는 독일에 있는 헤른후트 공동체 본부를 2주동안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500여명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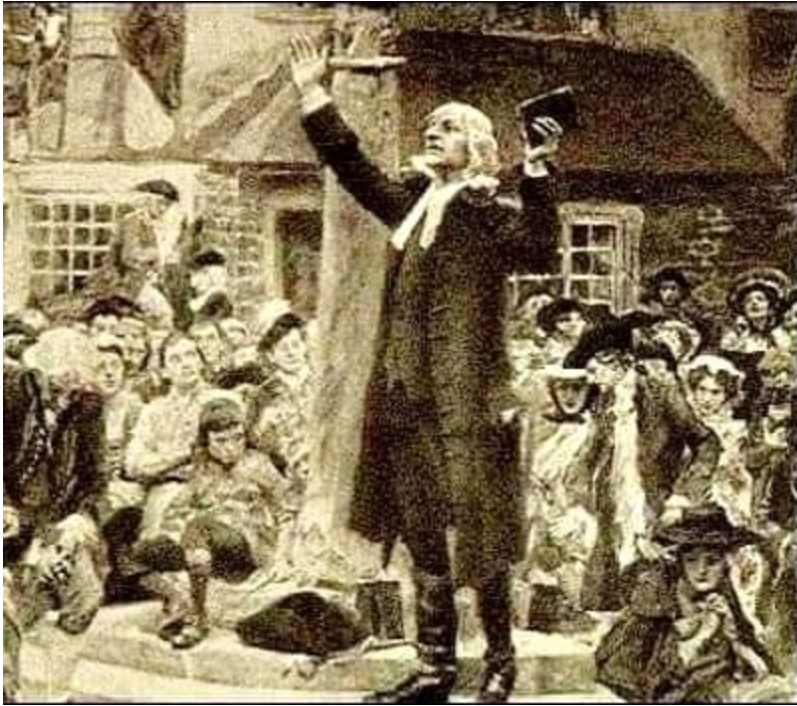
영국 성공회 신부였던 존 웨슬리의 간절한 염원은 생명력을 상실한 당시의 성공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살아있는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헤른후트 공동체와 같은 공동생활의 형태를 성공회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헤른후트 공동체에 있는 진젠도르프와 웨슬리의 흉상

영국 성공회 신부였던 존 웨슬리의 간절한 염원은 생명력을 상실한 당시의 성공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살아있는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헤른후트 공동체와 같은 공동생활의 형태를 성공회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웨슬리는 당시 헤른후트 공동체에서 시행하고 있던 "조(band) 모임"을 접하고 영감을 얻었다. 조모임은 5명 이내의 공동체 지체들이 주 2회로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소그룹 공동체 모임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존 웨슬리

웨슬리는 이 소그룹 공동체 모임이 영국 성공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확신하여 실행한 것이 바로 "속회(band)" 모임이었다. 그러나 성공회가 웨슬리의 교회갱신 운동을 거부하자 그는 성공회 밖에서 감리교 (Methodist Church) 운동을 활발히 펼쳐 나갔다. 헤른후트 공동체에 영향을 받은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결국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 있는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한 공동체 운동 이었다.

이처럼 야곱 스페너가 시작한 경건주의 운동은 헤르만 프랑케의 교육 공동체, 진젠도르프의 헤른후트 공동체,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18세기의 교회갱신과 세계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계속)



하베스트국제사역원
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

하베스트대학교 | 선교사 연장교육원 | 치앙마이 센터 | 하베스트 연금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은 한국, 태국, 미국 정부에 공식 등록된 단체입니다.

하베스트는 교육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추수하도록 **선교사 연장교육원, 하베스트 대학교, 치앙마이 선교센터, 선교사 연금** 등의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자!”

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영성과 품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하베스트 대학교** ◆ **선교사 연장교육원**
◆ **치앙마이 선교센터** ◆ **선교사 연금 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베스트는 늘 선교사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베스트 치앙마이 센터 소식을 나눕니다.

치앙마이 한달 살기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하베스트 선교센터는 선교사들의 휴식과 재교육의 장소를 위해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1층 예배실, 도서관, 사무실, 세미나실

2층 게스트하우스 - 침대, 에어컨, 식기류 등 각 방을 위해 4백만 원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층 치앙마이 전경이 보이는 연구실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치앙마미 센터를 오픈합니다.

하베스트 가족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시고 오셔서 논문도 쓰시고 쉼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용료 1인 1일 2만원 (조식포함)

치앙마이 센터 예약 (하베스트대학교 홈페이지)



선교센터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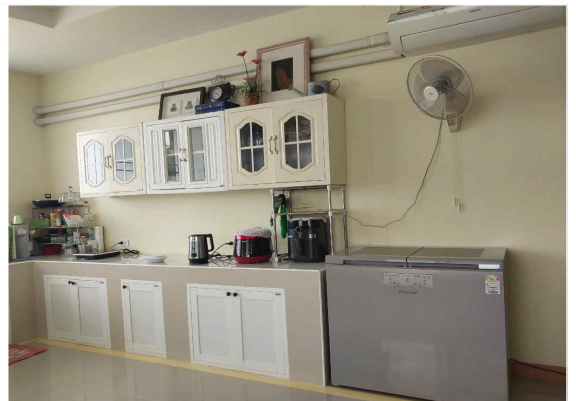
입구에서 본관 진입로



선교센터 정면



4만 여권의 도서가 있는 도서관



2층 게스트하우스

거룩 그리고 예배



박일승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교수

가슴벅차게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요. 할렐루야!

'여호와와 날'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시고, 약탈당하

던 데서 이방나라들의 보화가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며 홀로 한 분이시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스 14:9). 할렐루야!



스가랴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그 날에는 대제사장의 관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귀가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기록될 것이라 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예외없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와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스 14:21
마지막 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입니
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
심으로 전개는 구속 이야기입니
다. 언약 백성 만드시는 이야기
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
녀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을
주목해야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

HARVEST TIMES
2025년 1월 15일 제5권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선교사 연금 프로젝트 시행



유대인도, 이방인도 거룩해야 하
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비하고
도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싶으시다는
가슴벅차는 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
니다.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왕되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
으로 끝납니다.

그 날을 사모합니다. 나의 오늘
이 그 날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부터 '거룩한 예배'를 연습하고,
드리고, 누리며(하나님 나라의 현
재성), 장차 가시적으로 임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
하게 되길(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축복합니다.

말 (1)

불꽃 신재성

내 안에 걱정의 말이 산다
보이지 않는 갈기를 휘날리며
욕망의 들판을 달린다

앞서고 싶고
말하고 싶고
벼락처럼 터져
핏빛 울음으로 번지는 마음
그것이 나의 말이다

길들지 않은 말은
언제나 맹목적인 불이 된다
허끝의 작우 불씨가
들판을 태우고
마침내 나를 삼킨다

이제 깨닫는다
달리기 전의 멈춤
외치기 전의 삼킴을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혼이 타서 재가 된다
말의 다스림이 없이는
참된 자유가 없다

오늘도,
고통으로 고삐를 당긴다
날뛰는 욕의 불대신
빛으로 내리는 말쭙을 믿고
조용히 묵상의 길을 걷는다



코칭은 코칭 그 이상이다



하베스트 대학교

코칭 리더십 대학원 교수

장세호 박사

코칭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존휘트모어의 코칭리더십 책을 중심으로 칼럼형식의 연재의 글로 코칭리더십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 나름의 칼럼형식의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 코칭은 코칭 그 이상이다

- 가르침을 넘어, 가능성을 일깨우는 예술

우리는 흔히 ‘코칭’이라 하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 휘트모어 경

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에게 코칭은 ‘가르침’이 아니라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의 목적지는 ‘정답’이 아니라 ‘잠재력의 발견’이었지요.

“성과 = 잠재력 - 방해요소”

휘트모어가 영향을 받은 티머시 골웨이는 『이너 게임(The Inner Game)』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트 저편의 상대보다 더 무서운 적은 네 안에 있다.”

우리를 막는 것은 외부의 한계가 아니라, 두려움·비교·통제 같은 내면의 방해요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짜 리더는 지식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방해를 걷어내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코칭이란, 누군가 안에 이미 있는 거대한 가능성을 꺼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떡갈나무가 될 도토리’와 같습니다. 도토리 안에는 이미 위대한 나무로 자랄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묘목처럼 길러진 나무들은 화분 속에서 뿌리가 꼬여버립니다. 휘트모

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리더는 현명한 정원사처럼, 그 얽힌 뿌리를 풀어주고 새로운 흙 속에 옮겨 심는다.”

리더십이란 바로 그 정성스러운 옮겨심기의 기술입니다.

■ 가르침보다 ‘깨달음’을 돕는 리더

진정한 코칭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 뿌리는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질문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휘트모어 역시 같은 진리를 전합니다.

“인간은 가르침보다 자각을 통해 성장한다.”

그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길이 ‘명령과 통제’가 아니라 ‘자각과 책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신뢰하는 것이 코칭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 자기 신뢰가 피어날 때

휘트모어는 심리학자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을 리더십에 연결했습니

다. 사람은 단순히 생존이나 인정의 욕구를 넘어서, ‘의미’와 ‘목적’을 향한 더 높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리더는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믿어주는 리더입니다. 자기 신뢰는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말로 시작되지만, 그 말보다 더 깊은 신뢰는 “나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코칭은 그 믿음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코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혁명입니다.



■ 리더십의 진화, 섬김의 리더로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돈보다 ‘의미’를, 경쟁보다 ‘기여’를 원합니다. 그들은 리더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진짜 리더십은 겸손해집니다.

휘트모어는 말합니다. “리더십의 마지막 단계는 ‘섬김’이다. 그것은 자아실현의 정점이며, 진정한 만족의 길이다.”

리더는 더 이상 권위를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코칭 리더십은 바로 그 변화의 길입니다.

■ 마무리하며

코칭은 단순한 관리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며, 성장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고, 그 안의 잠재력을 꺼내줄 때 비로소 코칭은 ‘코칭 그 이상’이 됩니다.



GROW 코칭 모델을 통한 선교 코칭 리더십 훈련 (선교사를 위한 7주 코칭 과정)

1. 강의 개요

이 강의는 선교사들이 기본적인 코칭 대화 기술을 배우고, 선교 현장에서 동역자와 현지인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GROW 코칭 모델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정은 이론 40% + 실습 60%의 비율로 진행되며, 매주 Zoom을 통해 2시간씩 배우고 연습합니다.

목표는 선교사들이 코칭적 태도와 질문법을 통해 스스로와 타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실천적 코칭 리더십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상: 선교사, 선교 리더십 사역자(초급 단계)

핵심 훈련: GROW 모델(Rapport-Goal-Reality-Options-Will)

7주간 강의 목차

1주차: 코칭의 이해와 기본 개념

코칭이란 무엇인가? (상담·멘토링·컨설팅과의 차이)

코칭의 기본 철학과 원리

코칭 대화의 효과와 선교 현장에서의 필요성

실습: 라포 형성 대화(친밀감 나누기, 칭찬하기)

2주차: GROW 모델 전체 흐름 배우기

GROW 모델의 구조와 단계 소개

Rapport → Goal → Reality → Options → Will

좋은 코칭 질문의 힘

실습: 짧은 1:1 GROW 대화 시도

3주차: Rapport & Goal - 신뢰 형성과

목표 설정

Rapport: 신뢰와 친밀감 형성 대화법

Goal: 진짜 원하는 목표 찾기 (기적 질문, 5 Why)

실습: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목표 코칭 대화

4주차: Reality - 현재 상태 점검하기

현재와 원하는 상태 차이 분석

장애물·제한 요인·자원 파악하기

실습: “현실 점검하기” 코칭 질문 훈련

5주차: Options - 대안과 가능성 찾기

다양한 관점에서 방법 탐색하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법 (브레인스토밍)

실습: “다른 방법은 없을까?” 대화하기

6주차: Will - 실행계획 세우기

실행계획과 책임감 형성

실행을 돕는 질문(언제? 무엇부터? 누구의 도움?)

실습: 1주간 실행계획 세우고 서로 점검

7주차: 통합 실습 & 피드백

GROW 모델 전체 대화 실습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실제 선교 현장 적용 아이디어 나눔

과정 정리 및 향후 실행 다짐



죄에 대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두 시선



김종일 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교수
아신 대학교 교수

1. 이슬람의 죄: 잊어버림과 불순 종의 목록

무슬림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말하는 죄는 마치 거대한 법전의 조항을 어기는 행위와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슬람에서 죄는 신이 정해놓은 경계, 즉, 율법(샤리아)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잊어버림’에서 비롯되거나 의도적인 ‘불순종’의 결과이다.

꾸란은 아담의 첫 번째 죄를 ‘반역’이 아닌 ‘잊어버림’으로 묘사한다

“일찍이 우리가 아담에게 약속하였으되 그는 잊었더라. 우리는 그에게서 ‘결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꾸란 2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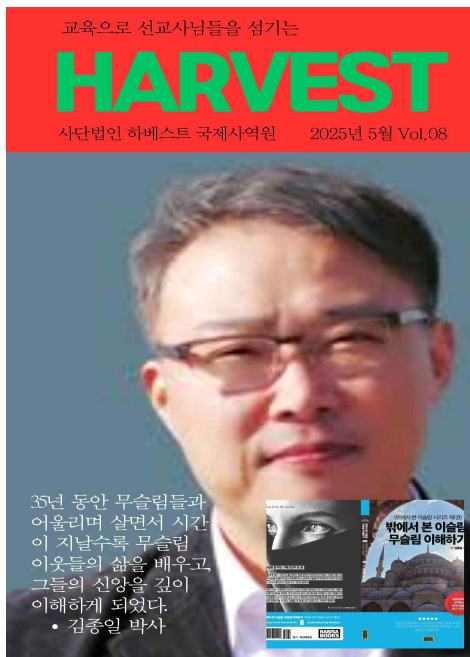
이 구절에서 ‘결의’라 함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 절대 과자를 먹지 않겠어!"라고 굳게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굳은 결심이 바로 '결의'이다.

그러나, 친구가 맛있는 과자를 건네며 유혹하자 그 결심이 흔들리고, "아, 맛다. 나 과자 안 먹기로 했지"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은 채 과자를 받아먹는다. 이때 우리는 그가 "과자를 먹으려는 의도적인 반항아"라고 말하기보다는 "유혹에 약하고 결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꾸란에서 아담의 죄를 보는 시각이 바로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꾸란에서 아담에게 '결의'가 없었다는 말은 그의 죄가 고의적 반역이 아닌, 유혹 앞에서 계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해져 저

지른 실수이자 망각이었음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표현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연약하다는 이슬람의 인간관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 구절은 죄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지만, 연약하여 신의 명령을 잊거나 유혹에 넘어져 법을 어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 세계에서 신앙생활이란, 이 법전의 조항들을 최대한 잘 지키고, 어겼을 때는 정해진 방법으로 만회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다. 하루 다섯 번의 기도는 그날의 작은 죄들을 씻어내고, 라마

단 기간의 금식은 더 큰 죄들을 용서받는 길이며, 평생 한 번의 성지 순례(하지)는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이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저울'의 이미지가 있다. 심판의 날, 모든 인간은 알라 앞의 거대한 저울 위에 자신의 선행과 악행을 올려놓는다. 선행의 무게가 악행보다 무거우면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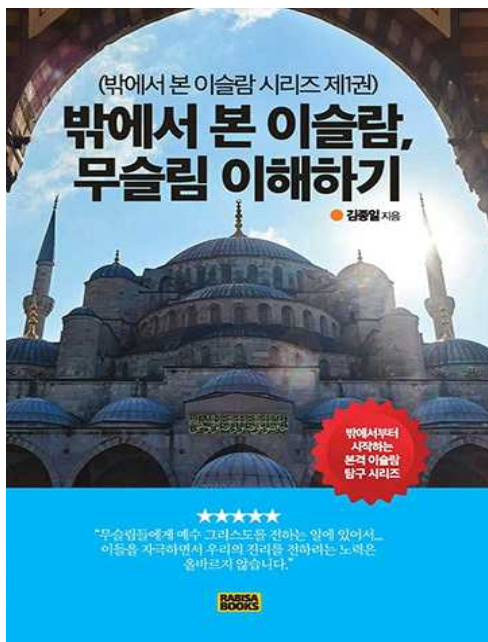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회개, 그리고 알라의 자비를 통해 구원을 '획득'해야 하는 존재이다. 물론, 그들은 '가장 자비롭고 가장 자애로우신' 알라의 용서를 간구한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나의 선행이 과연 충분한가?'라는 실존적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시장에서 저울 눈금을 속이지 않으려 애쓰는 상인,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풀며 선행 점수를 쌓으려는 순례자의 모습 속에서 필자는 구원을 향한 그들의 처절한 노력을 본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의 무게를 느낀다.

2. 기독교의 죄: 과녁을 빗나간 존재의 상태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는 ‘죄’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뜻은 ‘과녁을 빗나간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법 조항을 어기는 행위의 목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존재의 근원적인 상태,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과녁을 향해 날아가야 할 화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졌지만, 가끔 실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향해버린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규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 이것은 우리가 죄된 ‘행동들’을 행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다.



이는 마치 독이 든 샘에서는 아무리 깨끗한 두레박을 사용해도 독이 든 물만 길어 올릴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죄의 본성’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은 인간 자신의 노력, 즉, 선행이나 고행, 율법 준수라는 약으로는 절대 치유될 수 없다. 우리의 선행

마저도 오염된 본성에서 비롯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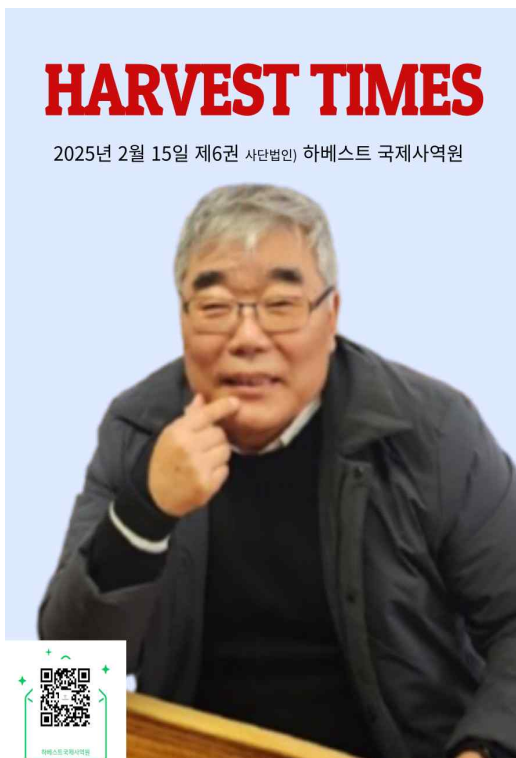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죄’의 문제 앞에서 갈라서는 결정적인 지점이다. 이슬람이 죄를 ‘상환이 가능한 빛’으로 본다면, 기독교에서는 죄를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죽음의 상태’로 본다. 빛은 노력해서 갚으면 되지만, 죽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외부로부터 오는 생명, 즉, 하나님의 개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시다

선교 현장에서 만난 한 무슬림 청년이 필자에게 물었던 적이 있다.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가 꼭 죽어야만 했다고 말합니까? 자비로운 알라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안에 두 신앙의 핵심적인 차이가 모두 담겨 있다.

이슬람의 ‘자비’는 죄를 ‘덮어주는’ 자비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을 넘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공의로운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하실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짚값은 사망’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찬란하게 빛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의로움의 저울’을 우리 앞에서 치워버리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다. 우리가 저울 위에서 위태롭게 나의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재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3. 저울을 치우시고 십자가를 세

의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지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이다.



무슬림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저울의 수평을 맞추려 애쓴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아래 엎드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그들은 죄의 목록을 하나씩 지워 가려 하지만, 우리는 죄의 뿌리째 뽑히는 경험을 한다.

그들은 알라의 ‘자비’를 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것은 종교적 우월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생명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필자는 오랜 기간을 무슬림들의 곁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율법이나 선행의 목록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자기 힘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절대적인 은혜, 그들의 모든 불안을 잠재울 완벽한 사랑,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이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심장에 피는 물처럼 새기고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저 또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남을 뿐이다.

예수 권세와 치유 효과

하베스트 대학교 목회대학원
선계명 박사



7주 강의 주제 (2026년 1월 14일 개강)

강의 신청: 하베스트 대학교 홈페이지

1주 예수님의 정체와 세 직분 - 여호와와- 예수로 옴, 왕 선지자,제사장.

예수님의 강조점 3=신국론, 권세사용, 십자가

2주 예수님의 삼대 권세 - 권세의미, 말씀, 피,이름 권세

3주 예수님의 사역에 3 권세 활용

4주 근거들 제시와 치유 효과를 본다.

5주 효과/작동되려는 조건들 - 하나님 나라 작동.

성령 안에서 느낌과 의미. 믿음대로 되라 의미

6주 지금도 가능하다. - 너도 쓰임 받는 도구다.

7주 주의 사행 3 - 비상상황 때 쓰라. 터부시 말라. 쓰라.

기도문 활용,

십자가 원리로 살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라.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에서는 - 선교사 연장교육원, 하베스트 대학교, 치앙마이 선교센터, 선교사 연금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재충전, 재교육, 재헌신하시도록 섬기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하베스트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하베스트 치앙마이 센터가 완공되어 많은 선교사님이 고향 집, 친정 집처럼 활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각 숙소에 에어컨과 침대 등이 구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각 방 400만원 x 숙소 12개**
 4. 하베스트 선교사님들에게 연금을 풍성하게 지급하여 마음의 위안을 주는 기관으로 뚝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선교사님 500명에게 150만 원씩 매월 연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언제든 달려오십시오!

항상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웃고, 쉬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어 봅시다.



선교사님께 10년간 연금을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으로 많은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며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세대가 선교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서는 파송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후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은 선교사 연금시스템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 연금 가입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산하에서 운영하는 "목회자·선교사 연금시스템"은 단순한 노후 준비를 넘어,

사명자들의 끝까지 흔들림 없는 사역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역을 중단하거나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통해,

🔊 끝까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 교회 헌금의 흐름도 건강하게 바뀌,

📖 더 많은 복음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 가입 대상은요?

만 70세 이하의 목회자와 선교사
월 1만 원 이상 후원 가능한 목회자와
선교사

하베스트 연장교육원 강좌

10과목 이상 수강 (가입 후 수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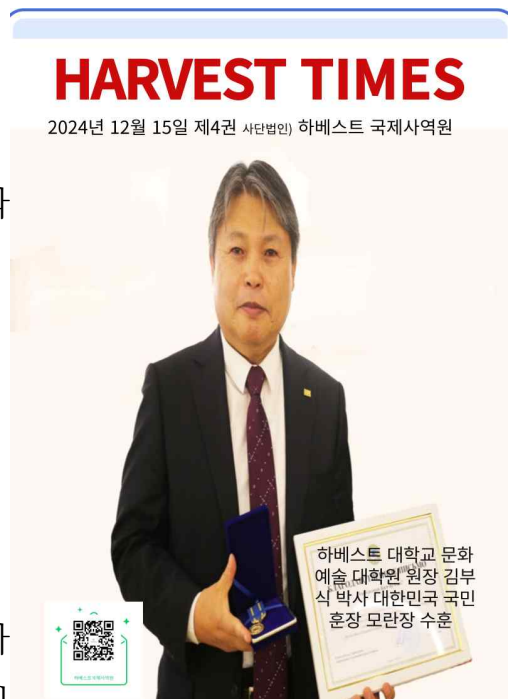
※ 배우자도 별도로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비와 연금 지급 방식

가입비 : 최초 1회 10만 원을 납입하며, 이는 연금회원 가입과 동시에 은퇴금으로 전환됩니다.

연금 지급 : 만 70세부터 120개월(10년)간 매월 분할 수령하거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 수령 시 자동 탈퇴됩니다.

연금 구성 : 회원이 납입한 금액에 후원금 분배와 열방물 사업 수익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 후원금은 어떻게 모이나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원금이 조성됩니다.

교회 재정 및 선교회의 후원

성도들의 월 1만원 이상 자발적 후원

열방물 쇼핑수입 및 열방물 입점 기업의 후원

아로마테라피협회의 강의사업 후원

연금 탈퇴자의 적립금 공동 분배

고액 후원, 유언 후원, 특별 후원

👤 왜 지금 가입해야 할까요?

후원 분배금 증가 :

은퇴금 누적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후원 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풍성한 연금 수령 :

동역자가 많아질수록 더 풍성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동반자 :

사역 중에도, 은퇴 후에도 든든한 사역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 가입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은 사) 하베스트 국제 사역원에 문의해 주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여 사역의 마지막까지 든든하게 함께하십시오.

"노후가 아닌, 사명의 연장입니다."

연금 가입안내

교회는 목회자와 선교사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청빙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은퇴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헌신해 온 분들이 사역을 마친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연금 가입 방법

하베스트 연금회원 가입과 동시에 은퇴금 가입자가 됩니다.

가입 후에는 입금 시

'이름 + 은퇴금' (예: 이주만은퇴금)

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불입 내역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은퇴연금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조성됩니다.

개인 불입 : 사역자 개인이 정한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합니다.

교회 적립 : 교회가 재정에서 사역자를 위한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매월 적립합니다.

후원자 지정 후원 : 후원자가 특정 사역자를 지정하여 일시불 또는 매월 후원합니다.

이렇게 은퇴금은 개인의 노력과 교회의 정책으로 만들어지며, 후원금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 은퇴연금 반환 사유와 지급 기준

사역 중단 시 : 불입된 금액만 반환되며, 후원금은 다른 회원들에게 공동 분배됩니다.

은퇴 전 사망 시 : 불입금과 후원금 전액을 유가족에게 지급합니다.

연금지급 개시 후 사망 시 : 남은 연금과 후원금 모두 다른 회원에게 공동 분배됩니다.

자녀 학자금/결혼 : 납입금액의 최대 80%까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금이 줄어들면 이후 후원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가입상담

주만장로 : 010-3418-9169

후원안내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의 선교사역이 지속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을 통해 선교사님의 사역을 끝까지 동역해 주세요!

문의 주만장로 010-3418-9169

찌고 말린 명품 생강, 설아래 홍생강레몬캔디

인삼보다 홍삼, 생강보단 홍생강.
쇼가올이 증가한 홍생강을 담은 명품 캔디



1/2

열방몰은 선교사 파송부터 노후까지 함께



우리교회



교회용품



매장방문



나눔마켓



잠재의식



선교상품



선교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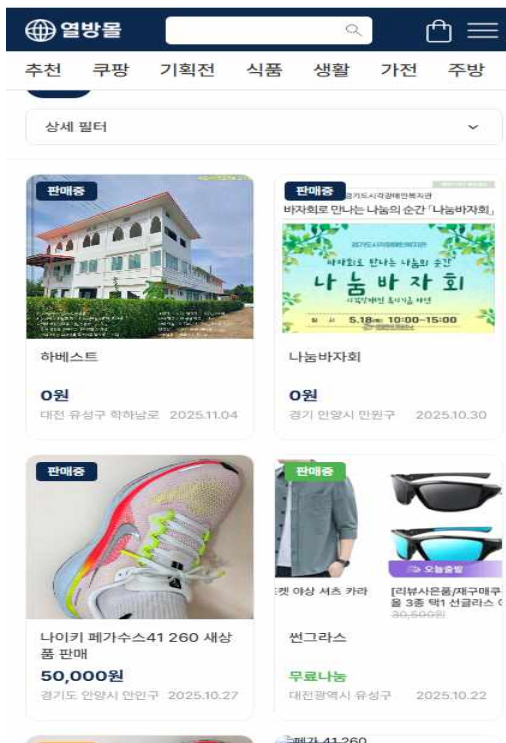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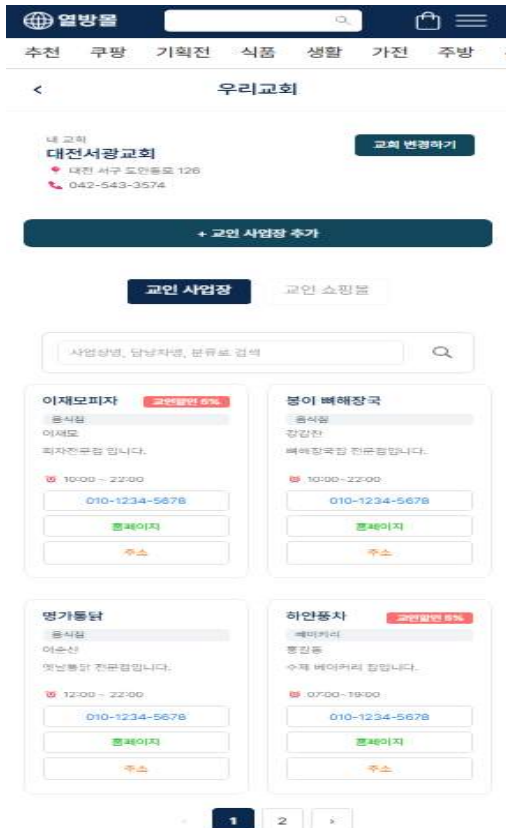
선교후원



선교강의



선교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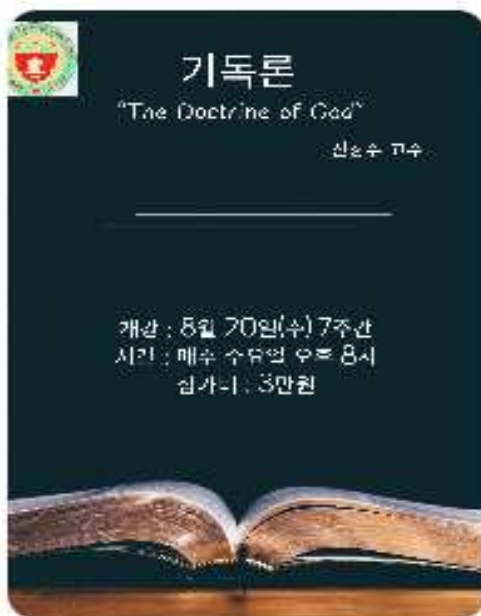


선교공지

국내부흥회

선교컨퍼런스

행사안내



1

공지 등록하기

HARVEST JOURNAL

하베스트 학술지 편집 위원

부편집장 김규동 박사
편집위원 조동욱 박사
김재수 박사
최하영 박사
김해규 박사
유정남 박사
김종일 박사
손승호 박사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HARVEST TIMES

2025년 11월 1일 제14호

발행인 이성상 박사

편집인 나주아 박사

